

Table of Contents

I. 들어가는 말

II. 금강산의 어원

III. 담무갈 보살의 유래

IV. 회암의 유래

V. 나가는말

II . 금강산의 어원



보물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

담무갈(曇無竭)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Dharmodgata Bodhisattva로 法盛·法勇·法上·法起등으로 의역한다.

8천계송계통과 2만5천계송계통 반야경의 맨마지막 장에 상제보살(Sadāprarudita Bodhisattva, 常悲, 普慈보살이라고도 함)의 이야기가 있다.

이것은 <대반야경>에서 제1회의 마지막으로 옮겨져 있는데 이것은 설화가 없는 반야경 안에서 주목되는 사실이다.

그는 옛날에 온 마음(一心)으로 반야바라밀을 추구하고 있었다.

공중에서 ‘**동쪽으로 가서 찾아라**. 그러면 그 가르침을 얻게 될 것이다’라는 소리가 들렸다.

그대로 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.

그는 번민하여 울부짖으며 더욱더 강렬하게 추구하자 공중에서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며 ‘**멀리 동쪽에 향성(香城, Gandhavatī)이라는 도성이** 있다.

거기는 일곱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고 황금으로 뒤덮여 있고 보배로운 나무가 늘어서 있다.

연못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 있고, 사람들에게 번민이 없는 곳이다

. 이 도성 중앙에 담무갈 보살의 낙원이 있다. 거기에서 보살은 많은 여자관리들과 함께 즐기면서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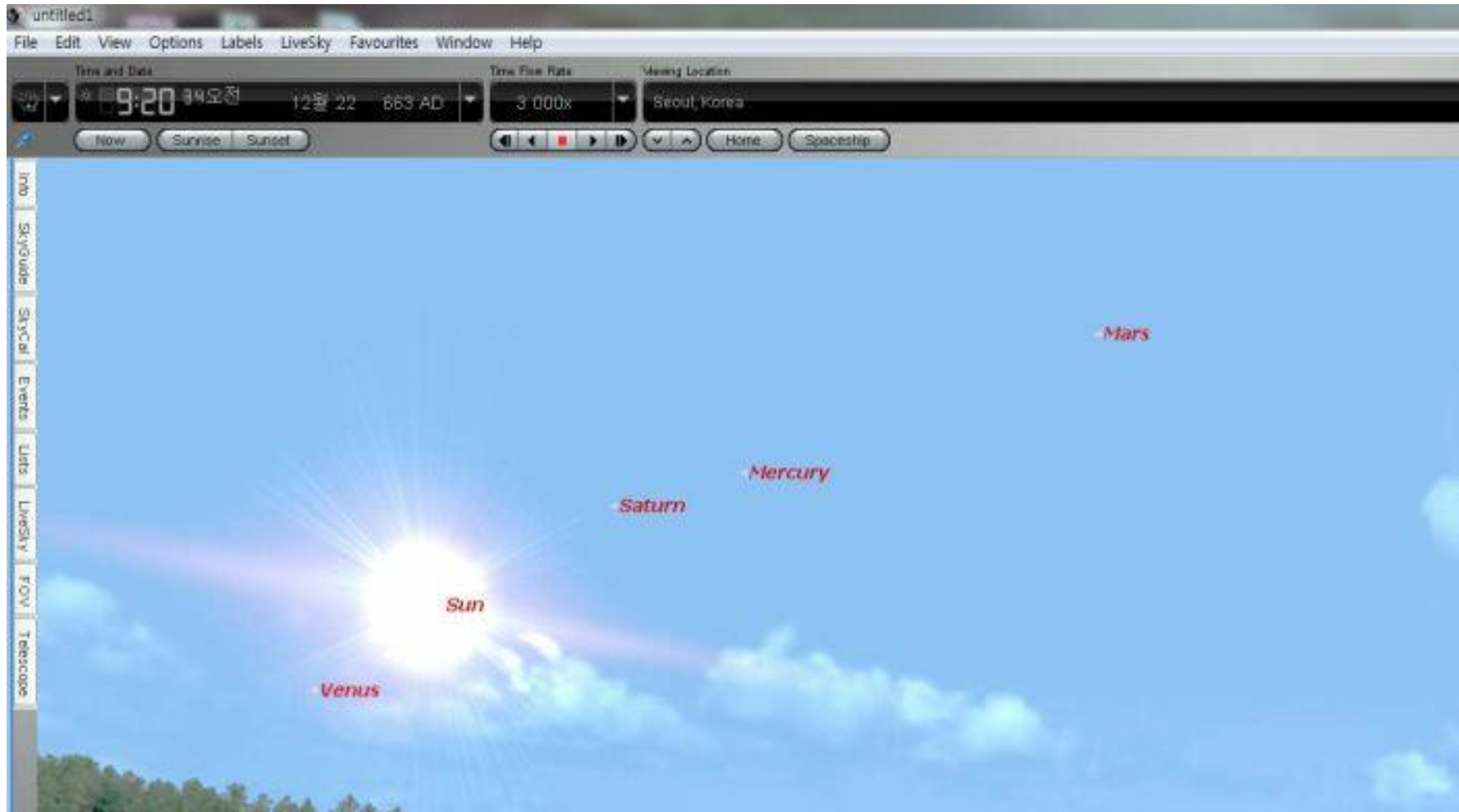
그러니 너는 그곳을 찾아 가거라’라고 가르쳤다.

시즈타니 마사오, 스구로 신쥬, 문을식 역, [대승불교3권 초기대승경전], (행복한 세상, 2013), p.42-43)

II . 금강산의 어원

연도	인물	내용
661	의상	661년부터 670년까지 9년 동안 당에 유학. 의상은 당의 대신라전쟁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귀국하여 호국불교를 일으켰던 대표적 호국불교승려,
697~700	화엄3조현수 법장	의상과 동기지간, 현수법장은 중국 화엄종의 제3조 의상에게 보낸 법장의 서한과 함께 법장은 의상에게 60화엄의 주석서인 <화엄경탐현기(華嚴經探玄記)>2권을 미완인 채로 보내어 검토해줄 것을 바랐다. 유식화엄과 중관화엄의 통합(최치원 기록)
787	징관	당 덕종 정원(貞元)3년 현수의 화엄종통을 이은. 동해의 동쪽 가까이에 산이 있는데 이름을 금강이라고 한다. 비록 전체가 금은 아니지만 위 아래 사방둘레 내지 산간에 흐르는 물속 모래 속에 모두 금이 있으므로 멀리서 바라보고는 곧 전체가 금이라고 말한다. 또 해동인(海東人)이 예부터 전하기를 이 산에서 가끔 성인이 출현한다고 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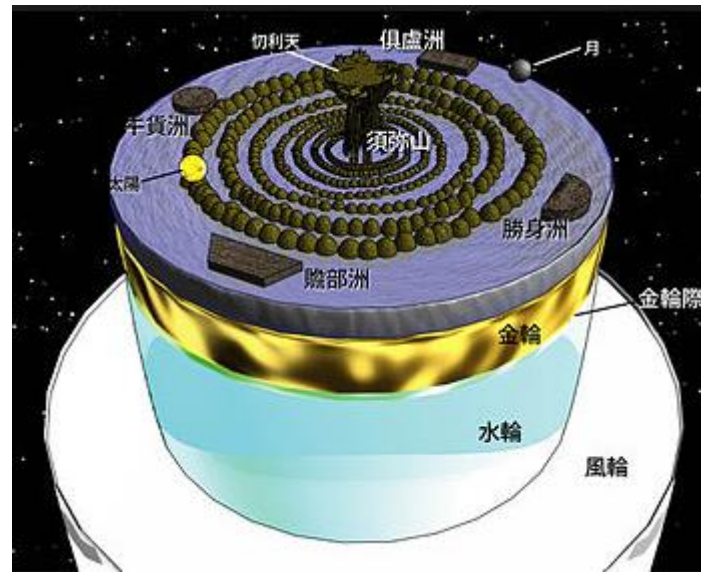
II. 금강산의 어원



663년 동지 백제 패망 때의 하늘과 1980년만의 4갑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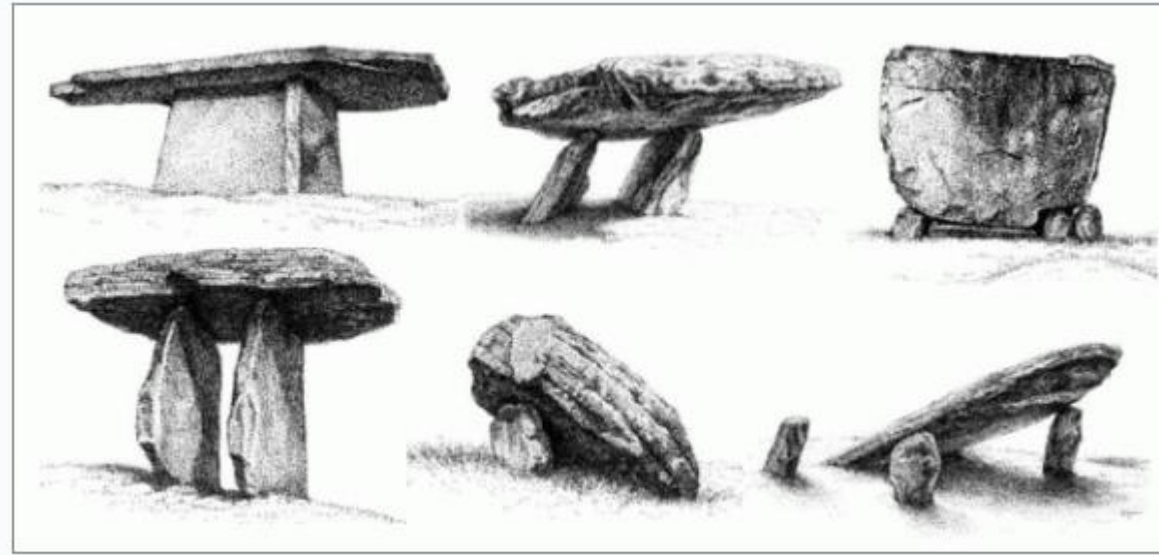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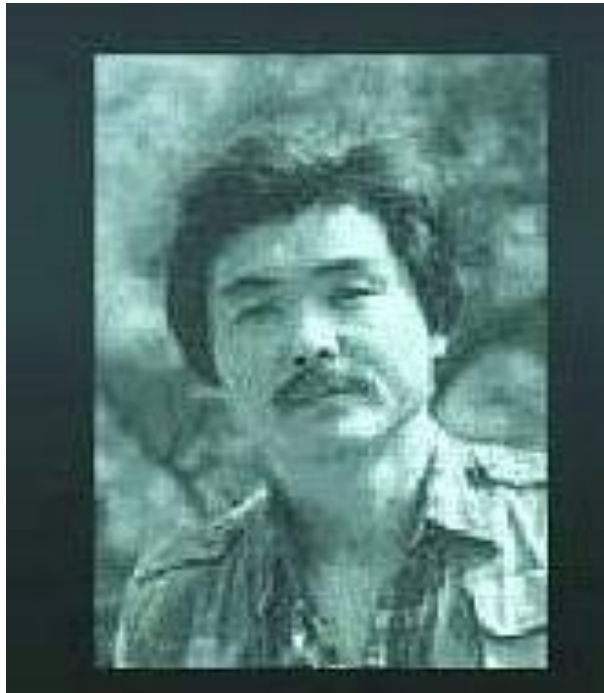
II . 금강산의 어원

금강산=수미산, 화엄경 출현 이유 : 샤카족-스키차이의 후예
석가족은 스스로 태양의 후예라고 했다



구산팔해=천룡팔부
삼천대천세계, 9번째 산, 삼신산
과거불의 수행터

II. 금강산의 어원



답사후 그린 고인돌그림(서양화가 변광현)

변광현(邊光賢) : 1956년 서울생, 숭문고교,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, 런던 세인트마틴 미술대학 출신
동대학교 교수역임.

화가. 고인돌 및 상고사 연구가. 2005년 기관원 내사후 의문의 별세.

<http://myhome.shinbiro.com/~kbyon/>